



헤세와 니체 II

- 영원회귀와 도덕관을 중심으로

Hesse und Nietzsche II - Mit Schwerpunkt auf die Ewige-Wiederkehr und Moralkritik

| | |
|--------------------|---|
| 저자 (Authors) | 홍순길 Hong Soon-Kil |
| 출처 (Source) | 헤세연구 14 , 2005.12, 92-110 (19 pages) Hesse-Forschung 14 , 2005.12, 92-110 (19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97004 |
| APA Style | 홍순길 (2005). 헤세와 니체 II. 헤세연구, 14, 92-110. |
| 이용정보 (Accessed)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13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헤세와 니체 II

- 영원회귀와 도덕관을 중심으로 -

홍 순 길 (목원대)

I. 들어 가는 말

니체의 영향을 받은 독일 작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니체는 헤세를 포함하여 1870 년대에 태어난 작가들, 특히 표현주의 작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이는 그 들이 작가로 활동 하던 시대 상황이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니체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상가였으며 니체를 모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¹⁾ 니체는 “그의 시대의 위대한 반명제 große Antithese seiner Zeit”²⁾로 그 당시 시대 정치 상황과 표현주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니체의 영향관계 아래서 고찰된 독일 작가들은 슈테판 게오르크 Stefan Georg, 칼 슈테른하임 Carl Sternheim, 휴고 폰 호프만슈탈 Hugo von Hofmannsthal, 로버트 무질 Robert Musil 등이다. 니체의 영향 관계가 강했던 시기는 헤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주의 시기 때이다. 1910 년을 전·후로 쓰여진 『페터 카멘진트』, 『데미안 Demian』, 『클링조르의 마지막 여름 Klingsors letzter Sommer』, 『싯다르타 Siddhartha』, 『클라인과 바그너 Klein und Wagner』, 『어린 영혼 Kleine Seele』, 『차라투스트라의 재래 Zarathustras Wiederkehr』 등의 작품

1) 『페터 카멘진트 Peter Camenzind』에서 리하르트는 니체도 모르는 카멘진트에 대해 의아해 한다. Vgl.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In: Hermann Hesse: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Bd. 1. Frankfurt/M. 1970. S. 383. (앞으로는 GW로 표기함)

2) Christian Morgenstern: Nietzsche. In: Bruno Hillebrand(Hrsg.): Nietzsche und die deutsche Literatur. 2 Bde. Tübingen 1978. S. 111.

속에 니체의 흔적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헤세와 니체를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헤세는 니체보다 대략 30 년 후에 태어났으므로 영향 관계를 따져 보면 당연히 헤세가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선행된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니체는 헤세의 젊은 시절의 우상이었다. 헤세는 니체를 “예언자”로 “철학적 거인”으로 또 “위대한 사고의 길을 걷는 작가”로 여겼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작품 『자라투스트라의 재래』도, 헤세 자신은 온전히 수긍하지는 않지만,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Also sprach Zarathustras』를 모방한 작품임을 부인할 수 없다.³⁾

니체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밝힐 수 없을 때,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헤세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니체의 주요 사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니체의 주요 사상적 주제의 관점에서 헤세를 조명하고 두 사람의 관점의 상위점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헤세와 니체의 운명애에 이은 계속 논문으로써 두 사람의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유사성을 가지는 영원회귀 사상과 도적비판을 다루려고 한다.

II. 영원회귀

영원회귀(‘Ewige-Wiederkehr’ 또는 ‘Ewige-Wiederkunft’)는⁴⁾ 어떤 일이나 상황이 영원히 계속 반복하여 돌아온다는 것이며,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완성되거나 도중에 중지함이 없이 계속 반복하여 순환함을 뜻한다. 조언 스탬보 Joan Stambaugh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서의 영원의 의미를 ‘끝없는 지속 endless duration’, ‘영원한 현재 eternal present’, ‘동시성 simultaneity’과 ‘무시간성 timelessness’로 보고 있다.⁵⁾

3) 홍순걸: 헤세와 니체 I. (=헤세 연구 13) 2005. 65-86 쪽 참조.

4) 니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같은 것의 영원 회귀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라고 쓰고 있다. 영원회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성진기: 니이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관한 고찰. 영원회귀 사상의 기본 개념. 실린 곳: 니이체 철학의 현대적 조명. 정동호 편. 청람 2001. 201 쪽 참조.

영원회귀 사상은 니체 철학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헤세의 문학 속에 내재하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상을 이해함으로써 두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 의 철학자들은 이 사상이 인생과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사상 가운데 하나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이 사상은 동양에서는 동양대로, 서양에서는 서양대로 독자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어왔다. 서양에서는 고대 회랍의 자연철학자들, 예를 들면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은 의해 모든 자연 현상에 순환적 영원성을 부여하였다.⁶⁾ ‘만물은 유전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나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설’ 등은 영원회귀 사상의 모태가 되는 사상들이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는 불교의 윤회사상, 업보 사상, 유교나 도교의 무(無), 도(道) 사상 등이 모두 영원회귀 사상과 연관 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인간과 우주 삼라만상의 제 현상은 원형적이고 반복적인 영원성에 그 기초를 둔다고 해석하는 것이며 “현존재를 세계의 자연적 총체와 결합시키려는 시도”⁷⁾로 볼 수 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영원회귀의 원리를 밝혔는데, 그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일들은 영원히 반복되며, 그 괴도는 처음과 끝이 없는 원형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회전한다.
모든 것은 죽고, 다시 꽃피우며, 존재의 한 해 한 해는 계속 지나간다.
모든 것은 부러지고, 모든 것은 새로 이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은 지어진다.
모든 것은 이별하고 모든 것은 다시 영원히 재회한다.
영원히 존재의 고리는 변함없이 남아 있다. [...]

- 5) Joan Stambauch: Nietzsche's Thought of Eternal Retur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2. p. 3. 『싯다르타』에서도 물의 비유를 통해 스탬바우가 말하는 영원회귀 사상이 나타난다. Vgl. GW 5. S. 436: "Es ist doch dieses, was du meinst: daß der Fluß überall zugleich ist, am Ursprung und an der Mündung, am Wasserfall, an der Fähre, an der Stromschnelle, im Meer, im Gebirge, überall, zugleich, und daß es für ihn nur Gegenwart gibt, nicht den Schatten Zukunft?"
- 6) 정동호: 니이체 연구.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에 있어서의 회귀 또는 순환의 사상. 탐구당 1983. 220-225 쪽 참조.
- 7) Karl Löwith: Nietzsches Philosophie der Ewigen Wiederkehr des Gleichen. Stuttgart 1956. S. 90.

영원의 길은 영원히 굽어져 있다.⁸⁾

니체가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영원회귀를 가르치는 선생”⁹⁾이라고까지 하듯이, 그의 영원회귀 사상은 그의 철학, 종교, 도덕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그가 밝힌 것과 같이 그의 주요 저서 가운데 하나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기본개념이며 궁정의 최고 형식이다.¹⁰⁾ 그러므로 영원회귀 사상에서의 중심 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종착점이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헤세나 니체와 같이 서구 기독교적 삶과 사고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상은 그들이 태어난 동지나 고향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사람 모두 경건주의 목사의 아들로써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교육에서 접한 종교와 사상은 신 중심이며, 신이 최종 목표이며, 신이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히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영원회귀 사상을 받아들이고 설파한 것은 서구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혁명이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회귀 사상은 반복적인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속에서 얻어진 자연 철학적인 귀결이다. 니체도 이런 세계를 “고정성, 불멸성, 일회성, 절대 목표를 배제한 하나의 생성으로 파악”¹¹⁾하고 있다.

8) Friedrich 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III. Der Genesende. Bd. 4. S. 272/3. In: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n in 15 Bänden. Hrsg. v.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München 1980. 앞으로는 전집은 KSA로 표기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단편의 글들은 작품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페이지를 적지 않는다. 니체 작품은 학계의 통례에 따라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은 MA, 『즐거운 학문 Die fröhliche Wissenschaft』은 FW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Also sprach Zarathustra』는 Z, 『선악의 피안 Jenseits von Gut und Böse』은 JBG, 『반기독교인 Der Antichrist』은 AC, 『이 사람을 보라 Ecce homo』는 EH, 『비극의 탄생 Die Geburt der Tragödie』은 GT, 『힘에의 의지 Macht zur Wille』는 MW, 『우상의 황혼 Götzendämmerung』은 GD로 표기한다.

9) Friedrich Nietzsche: GD. § 5.

10) Friedrich Nietzsche: EH. In: KSA 6. S. 335.

11) 성진기: 니이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고찰. 실린 곳: 니이체 철학의 현대적 조명. 정동호 편. 청람. 2001. 213 쪽.

헤세도 니체와 마찬가지로 'ewige Wiederkehr'라는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헤세도 니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다시 돌아 온다"¹²⁾는 회귀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영원회귀는 동양의 윤회나 영혼불멸 같은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는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을 변용하는 여러 인물 형상을 통해 그리고 있다.

그는 어떤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확신 속에서 영원회귀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낭만적 윤회로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헤세가 윤회를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대로 받아들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는 동양사상 애호가이자 예찬자이며, 또 힌두교나 불교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교리나 독단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작가로서 이 사상을 받아들였다.

헤세는 불교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상가들의 윤회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은 이 윤회로부터 나와서 이 윤회로 되돌아간다"¹³⁾는 열자의 생의 윤회론이나 영혼불멸 사상을 믿고 있다. 헤세는 부처의 가르침 속의 윤회를 "영원회귀 ewige Wiederkehr"로 표현하고 있다.¹⁴⁾ 무엇보다도 헤세는 삶과 죽음의 윤회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이며, 몰락은 신생이다. 이것이 불교적 윤회와 영혼불멸설에 근거한 것인지 그의 마적이고 신비적인 전일사상, 그러니까 양극적 통일관에 근거한 것인지 밝힐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개념의 근거에는 윤회적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삶이 시작하여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일직선적, 목적론적 과정이 아니라 삶은 죽음이 되며 죽음은 다시 삶이 된다는 수레바퀴와 같은 원형적이고 탈목적적인 사고 과정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회사상은 헤세의 작품에서도到处에 나타난다.

『게르투르트 Gertrud』에서 윤회는 업보 Karma로 인한 것이며 "인과 법칙의 도덕적 숭배"¹⁵⁾라는 비교적 원론적인 윤회관을 피력하고 있다. 『크눌프 Knulp』에서

12) Hermann Hesse: Siddhartha. GW 5. S. 455.

13) Liä Dsi: Das wahre Buch vom quellenden Ungrund. Buch I, 4: Die Totengebeine. Kreislauf des Lebens. Düsseldorf 1972. S. 37: "Alle Geschöpfe kommen aus diesem Kreislauf hervor und gehen wieder in diesen Krieslauf."

14) Vgl. Hesses Brief an Fräulein G. D. v. 15. 7. 1930. In: Hermann Hesse: Ausgewählte Briefe. Frankfurt/M. 1981. S. 31.(앞으로는 AB로 표기함)

는 꽃의 비유를 통해 크눌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안개가 내리면 꽃들은 모두 시들어 버리네.
인간도 죽어 무덤 속에 눕게 되네.
인간 또한 꽃과 같이,
봄이 오면 그들은 모두 살아나리.[...]16)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 윤회의 작용아래 놓이게 된다. 또한 시 「모든 죽음 Alle Tode」에서도 식물, 동물과 인간의 윤회적 죽음을 노래하고 있다.

모든 죽음을 벌써 죽었고,
모든 죽음을 다시 죽으리,
나무 속의 목재의 죽음을 죽고,
산 속의 돌의 죽음을 죽으며,
모래 속의 지상적 죽음과,
바스락거리는 풀 속의 나뭇잎 죽음과,
불쌍하고 피 흘리는 인간의 죽음을 죽으리.

꽃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리.
나무와 풀로 다시 태어나리,
고기와 사슴, 새와 나비로.
[...] 17)

윤회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싯다르타』, 『유리알 윤회 Das Glasperlenspiel』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유리알 윤회』에서 크네히트는 이력서라는 형식을 빌려 5 개의 각각 다른 인물 형상으로 환생한다.¹⁸⁾ 크네히트의 영혼은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생하는데, 수천 년 전에는 기우사로, 기원 후 4세기에는 기독교

15) Hermann Hesse: Gertrud. GW 3. S. 63.

16) Hermann Hesse: Knulp. GW 4. S. 508.

17) Hermann Hesse: Die Gedichte. 2 Bde. Frankfurt/M. 1977. Bd. 2. S. 457.

18) 이인웅: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 두레. 2000. 178 쪽 참조.

참회자로, 18세기에는 슈바벤의 신학자로, 때론 시간을 초월한 인도 라바나 왕의 아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0년에 유리알 유희의 명인으로 태어난다. 크네히트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그 들 존재 이전에 다른 육체로, 다른 시대에, 그리고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옛 존재가 있었다는 생각에 젖어 있다.”¹⁹⁾

헤세는 불교의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업보에 따라, 인과응보의 결과에 따라 윤회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흥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윤회를 벗어나는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의 주인공들은 기쁘게 윤회하듯 윤회 속에서 머물며,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의 다양하고 참다운 면모를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 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 das Nichtmehrgeborenwerden”이라고 부르고 그는 한 번도 열반을 간절히 바라 적어 없다고 하였다. 『싯다르타』에서 주인공 싯다르타는 결코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주인공으로 하여금 “새로운 여정, 새로운 형상, 즉 신생”²⁰⁾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²¹⁾ 헤세는 판뷔츠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나는 여러 번에 걸쳐 환생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위대한 시대들을 함께 살아가는 한 인간을 생각했다”²²⁾고 고백하고 있다.

그의 이런 윤회관에 따라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죽지 않고 늘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난다. 특히 『클링조르의 마지막 여름』에 보면, 클링조르의 얼굴 속에 수많은 여러 형태의 얼굴이 담겨 있다. 그의 얼굴은 동물의 얼굴로 변했다가, 식물의 얼굴로 변하더니만 어느 새 돌의 얼굴이 되어 버린다.²³⁾ 인간이 여러 모습으로 나

19) Hermann Hesse: Das Glasperlenspiel. GW 9. S. 119.

20) Hermann Hesse: Tagebuch 1920/21. In: Eigensinn. Frankfurt/M. 1972. S. 120. 헤세는 Lisa Wenger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싯다르타가 죽으면 열반을 원하지 않고 신생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윤회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였다. Hesses Brief an Lisa Wenger v. 10. 2. 1921. In: Hermann Hesse: Gesammelte Briefe in 4 Bänden. Frankfurt/M. 1973ff. Bd. 1. S. 466.(앞으로는 GB로 표기함. 그 위의 숫자는 권수를 나타냄)

21) Ziolkowski는 싯다르타가 열반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Vgl. Theodore Ziolkowski: The Novels of Hermann Hesse. Princeton 1965. p. 158.

22) Hesses Brief an Rudolf Pannwitz v. Januar 1955. In: AB. S. 436.

23) Hermann Hesse: Klingsors letzter Sommer. GW 5. S. 349: “Und noch weiter, noch tiefer hinter all diesen Gesichtern schliefen fernere, tiefere, ältere Gesichter, vormenschliche, tierische, pflanzliche, steinere, so als erinnere sich der letzte Mensch auf Erden im

타나는 것을 마이어 Gerhart Mayer도 자아의 환생으로 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여러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헤세와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들은 모두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삶을 관조함에 있어서 이런 윤회적 질서를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두 사람 모두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ewige Wiederkehr’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 강조점이 다르다.

니체의 경우에는 영원회귀에서 영원한 힘의 의지를 느꼈으며²⁵⁾, 또한 동시에 같은 것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무를 느꼈다. 니체는 “영원회귀가 허무주의의 극단적 형식”²⁶⁾이라고 결론짓는다. 니체가 영원회귀에서 허무를 느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그는 또 “허무주의를 자신의 철학에 있어서 근본 문제로 삼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²⁷⁾했다. 그가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염세 철학이 쇼펜하우어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니체가 처음에 쇼펜하우어의 염세철학에 동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니체는 후일 그의 염세철학이 “도덕에 있어서의 퇴폐적 운동”²⁸⁾에 불과하다고 하여 멀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영원회귀는 “현존의 영원한 모래시계”²⁹⁾로써 다가온다. 악령이 와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네가 다시 한 번 그리고 무수히 거듭해서 살아야 한다.”³⁰⁾고 말한다면 그 것은 곧 허무요, 절망이다. 니체가 ‘초인’이 필요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신은 죽었다”는 것이 그 첫 째 가는 원인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Augenblick vor dem Tode nochmals traumschnell an alle Gestaltungen seiner Vorzeit und Weltenjungen.

24) Gerhart Mayer: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s mit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Diss. Bonn 1966. S. 151.

25) 성진기: 니이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관한 고찰. 195 쪽

26) Friedrich Nietzsche: WM. § 55.

27) 최준성: 니이체에 있어서의 허무주의. 실린 곳: 니이체 철학의 현대적 조명. 정동호 편. 청람 2001. 97 쪽.

28) Friedrich Nietzsche: GD. § 37.

29) Friedrich Nietzsche: FW. § 341.

30) Ebd.

게 같은 것이 계속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다.

니체와 반대로 헤세는 모든 것이 쉽 없이 반복하여 되돌아오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활력을 느낀다. 헤세는 윤회, 영원 회귀, 영혼불멸을 믿지만 그로 인해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아니하였고, 또 어떤 초인과 같은 대상도 찾지 않았다. 그는 이런 변화와 변신에서 삶의 의미와 낭만을 찾는다. 헤세는 영원 회귀를 일종의 낭만적 윤회로 여겼다.

『픽토르의 변신 *Piktors Verwandlung*』에서 주인공 픽토르는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이 동화의 세계에서는 새가 꽃, 나비, 수정 등으로 변하며 꽃도 벌새나 물고기로 변한다. 변화의 낙원이 바로 픽토르가 들어간 숲이다. 픽토르는 뱀에게 속아 나무로 되었지만, 그 후 아무 것으로도 변신하지 못해 불행하다가, 같은 나무로 변한 한 소녀와 한 몸이 되어 다시 물고기와 구름과 새로 변하여 행복을 되찾는다. 이 작품은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은 기독교의 에덴동산에서 뱀에 속아 불행해진 인간이 선악과나무의 상태로 머물렀을 때는 불행했지만, 그 후 다시 다른 것으로 변신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음을 동화 형식으로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싯타르타』에서 주인공 역시 수많은 “형상의 수레바퀴 *Rad der Gestaltungen*”³¹⁾를 마치 생의 계단을 한 계단씩 명랑하게 올라가듯 자아를 찾는다.

영원회귀 사상에 심취한 헤세와 니체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방랑 예찬이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나 헤세의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도착된 것을 거부하고, 만물이 유전하듯, 늘 방랑과 변용의 길을 간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에서 이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방랑자와 다를 바 없고, “변화와 무상함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방랑적인 것이 그 자신 속에 있어야만 한다”³²⁾고 했다. 헤세가 이해한 방랑자들도 늘 “변화와 환상의 승배자”³³⁾들이었다.

31) Hermann Hesse: *Siddhartha*. GW 5. S. 425.

32) Friedrich Nietzsche: *MA 2*. § 638. 헤세의 방랑모티브에 대해서는 홍순길: 헤세의 생애를 통해 본 방랑과 안주의 모티브.(=헤세연구 8) 2002 및 홍순길: 헤세의 작품에 나타난 방랑과 안주의 모티브.(=헤세연구 9) 2003를 참조

33) Hermann Hesse: *Bauernhaus*. GW 6. S. 134.

III. 도덕비판

헤세와 니체의 사상가운데 가장 유사성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관과 도덕관이다. 두 사람은 이 점에 있어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 같은 종교적 상황과 계기에서 출발한다. 두 사람은 모두 기독교 경건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모두 기독교 신앙과 도덕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종교 문제였고 또 헤세는 작가로서 니체는 사상가로서 이 문제와 일생동안 씨름했다.

그들이 도덕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독교의 유일신을 바탕으로 한 도덕과 윤리이다. 헤세와 니체는 모두 “신은 죽었다”³⁴⁾고 외쳤으며, 이원론적, 목적론적 도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폴론적 세계관을 배척하고 디오니소스적 삶, 인간 개성의 내적 조화와 완성을 더 염두에 두었다.³⁵⁾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삶을 약화시키고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니체는 “생을 변호하는 본능으로써 도덕 윤리에 칼을 들었던 것”³⁶⁾이다. 도덕은 살아 숨 쉬며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피를 빨아먹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고 활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특히 니체는 『서광 Morgenröte』에서 출발하여 『힘에의 의지』 등 여러 곳에서 도덕에 대해 비판을 가했으며 그 비판의 강도는 『도덕 계보학 Zur Genealogie der Moral』에서 절정에 이른다.

니체는 “도덕은 지상의 모든 사물과 같이 비도덕적이다. 도덕성 자체를 비도덕의 한 형식”³⁷⁾으로 보았으며 또한 아울러, “도덕적인 현상은 없다. 단지 현상의 도덕적 해석만 있을 뿐”³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니체는 길으로 나타나는

34) Friedrich Nietzsche: FW, § 125. Hermann Hesse: Gertrud. GW 2. S. 38. 또는 Hermann Hesse: Die Gedichte. Bd. 1. Frankfurt/M. 1977. S. 245.

35) 이보 프렌켈은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이고 반도덕적이며 이성적대적인 생활학은 계몽주의와 유럽의 휴머니즘적 전통에 화살을 들린다”라고 하였다. 이보 프렌켈: 니체, 강대석 역, 한길사, 1997. 100 쪽.

36) Friedrich Nietzsche: GT, § 5.

37) Friedrich Nietzsche: WM, § 307.)

38) Friedrich Nietzsche: JGB, § 108.

가식적인 도덕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다. 도덕이란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은 인간을 구속하고 속이는 것이다.

모든 도덕은 인간이 도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인간 속에 있는 야수를 기만하려는 하나의 일시적 거짓인 것이다. 도덕은 철학자들의 본래의 요부인 유희술 중에서도 최고의 여인인 것이다.³⁹⁾

그래서 니체는 이런 도덕을 계속 추구할 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유럽 기독교 사회가 수 천 년 동안 이런 도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몰락에 직면하고 있으며,⁴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도덕은 몰락의 의지”⁴¹⁾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도덕을 믿고 있는 한, 우리들은 생존을 단죄한다”⁴²⁾고 하였다.

니체가 도덕을 이야기 할 때, 헤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도덕이다. 니체는 기독교, 기독교 신앙, 기독교 도덕에 대한 공격에서 그의 사상의 실마리를 찾았다. 『반 기독교인』에 ‘기독교에 대한 저주’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기독교와 그 도덕에 대한 그의 혐오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각한, 기독교의 잣대로 잴 도덕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모든 가치의 전도 Umwertung aller Werte』에서 “도덕을 믿는 모든 종교는 멸망한다”⁴³⁾고 단언하였으며,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의 경우에도 같다고 하였다.

헤세의 도덕관도 다분히 반 기독교적인 것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헤세는 “내 종교는 경건하지만, 도덕에서 자유롭다”⁴⁴⁾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그가 음악을 좋

39) 발터 니그 예언자적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 정경석 역. 분도출판사 1973. 65쪽에서 재인용.

40) 니체는 『힘의 의지』 제 1부에서 기독교 도덕이 붕괴해야 하는 유럽의 허무주의에 대해 다루었다.

41) Friedrich Nietzsche: Z 1. Vorrede. § 4.

42) Friedrich Nietzsche: WM 1. § 6.

43) Friedrich Nietzsche: Umwertung aller Werte. Hrsg. v. Friedrich Würzbach. (= dtv-Bibliothek 6079) München 1969. § 266.

44) Hesses Brief an Karl Isenberg v. 12. 6. 1897. In: Hermann Hesse: Kindheit und Jugend

아하는 이유도 “음악이 비도덕적이기 때문”⁴⁵⁾이라는 것이다. 헤세의 도덕기피증은 니체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도 니체처럼 도덕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도덕이 어디에서 왔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세는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는 그런 기준이 다분히 기독교적이고 신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헤세의 작품 경향이 늘 그렇듯이 헤세는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성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듯이 도덕 또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⁴⁶⁾ 인간이 어떠한 종교적 교리나 도덕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헤세는 생각한다.

헤세와 니체의 도덕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선악관’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 도덕에 기초한 선악관을 거부하지만 그 근거는 다르다. 니체에게 있어서 선악은 철저히 힘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

선한 것이란 어떤 것인가! 힘의 감정이나 힘에의 의지나 인간 속에서 힘 자체를 고취시켜 주는 모든 것이 선인 것이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무엇이건 악한 것에서 생겨나는 것은 모두가 악한 것이다.⁴⁷⁾

니체의 도덕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쓴 『데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미안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분명 정통 기독교의 선악관과는 다른 것이며, 이러한 니체적 선악관을 대하는 어린 징클래어의 놀람과 두려움은 바로 헤세가 니체의 선악관을 대했을 때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니체가 힘의 의지에 근거하여 선악을 판단한데 비해, 헤세는 선악의 개념을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독단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헤

vor Neunzehnhundert. 2 Bde. Frankfurt/M. 1966 & 1977. Bd. 2. S. 191.

45) Hermann Hesse: *Demian*. GW 5. S. 100.

46) Vgl. Hesses Brief an Hilde Saenger [1931]. In: GB 2. S. 304: “Es gibt keine andern Götter, als die der Mensch sich macht. Es gibt ja auch keine andern Religion, Gesetze und Moralen, als die der Mensch sich macht.”

47) Friedrich Nietzsche: AC. § 170.

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단상 Ein Stückchen Theologie」에 피력한 그의 선악관을 살펴보면 꽤 흥미롭다. 우선 인간 형성의 과정에서 인간이 무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독특하다. 이 견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다는 정통 기독교의 원죄론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죄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덕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헤세의 기독교적 성향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개인 기독교”⁴⁹⁾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 기독교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운 것”⁵⁰⁾이다. 선악관의 관점에서 볼 때 헤세가 생각하는 신은 정통 기독교 신만은 아니다. 그의 선악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의 삶과 사고방식이 기독교적이듯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다. 그러나 이 선과 악은 인간을 종교로 규정짓거나 도덕의 잣대로 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데미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알에서 깨어나 날아가야 할 신은 기독교의 신이 아니다. 그 신은 선과 악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강요하는 기독교신이다. 이 신은 야누스의 얼굴 같이 두개의 얼굴이 하나로 된 신이다. 징클레어가 꿈에 본 베아트리체는 “천사의 모습인 동시에 사탄이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된 것이며, 사람인 동시에 짐승이었으며 최고의 선인 동시에 최고의 악”⁵¹⁾이었다. 헤세가 아브라하스와 같은 인물설정을 베아트리체로 잡은 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피안의 안내자 베아트리체가 기독교신을 미화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데미안은 징클레어에게 선의 신과 마찬가지로 악의 신도 섬겨야 한다고 충고한다.⁵²⁾ 선악을 초월할 경우에는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48) Vgl. Hermann Hesse: Ein Stückchen Theologie. GW 10. S. 77.

49) Hesses Brief an D. Zimmermann v. 3. 3. 1935. In: GB 2. S. 458. Gerhart Mayer는 그의 신비주의적 종교성을 가리켜 “개인적 종교성 individuelle Religiosität”이라고 했다. Gerhart Mayer: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s mit den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A.a.O., S. 39.

50) Hesses Brief an Kuno Fiedler gegen Oktober 1939. In: AB. S. 183.

51) Hermann Hesse: Demian. GW 5. S. 95.

52) Hermann Hesse: Demian. a.a.O., 5. S. 93: “[...] man müsse aber die ganze Welt verehren können, also müsse man entweder einen Gott haben, der auch Teufel sei, oder man müsse neben dem Gottesdienst auch einen Dienst des Teufels einrichten.”

있는 도둑도 훌륭하다. 그는 기독교적인 도덕에 어긋나는 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개성을 가진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헤세 소설의 주인공들은 헤세와 같이 모두 도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선에서 악, 무죄에서 죄를 거쳐 두 세계를 비판하거나 나누지 않고 전체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에는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이다. 헤세는 단호하게 “도덕은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⁵³⁾고 선언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악을 믿지 않으며 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모두 좋다고 하였다.⁵⁴⁾

헤세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결혼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많은 도덕적 고뇌를 맛보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도덕적 견해차를 많이 겪어 왔다. 그 때마다 그가 고집스럽게 견지하는 생각은 “나는 내 도덕으로 산다”⁵⁵⁾는 선언적 자세였다.

그렇다고 헤세가 철저히 비도덕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독일 청소년들의 비도덕주의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그들이 의무와 관습, 책임, 죄와 죄의식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비웃어 버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헤세는 니체의 도덕 파괴술에 매혹되었지만 니체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이미 언급한 니체의 선=좋다, 악=나쁘다는 도식에 찬성하지 않는다. 니체는 선악을 나눌 때 힘의 의지가 있는 것은 선으로써 좋고, 힘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악으로써 나쁘다고 했지만, 헤세는 선악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위한 상보적인 것으로 보았다. 『유리알 유희』에서 보면, 헤세는 니체와 함께 잠문시대의 여러 징후 가운데 하나인 도덕의 몰락을 예감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⁵⁶⁾, 그들이 도덕 자체를 거부하거나 도덕의 무의미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대로 그들이 거부하는 도덕은 판에 박은 기독교적이고, 삶에 역행하고 독단적이고 목적론적인 도덕이다.

53) Hesses Brief an Els Bucherer-Feustel v. 12. 7. 1919. In: GB 1. S. 406.

54) Hesses Brief an Carl Seelig gegen Herbst 1919. In: GB 1. S. 424: “[...]denn ich glaube längst nicht mehr an Gutes und Böses, sondern glaube, daß alles gut ist, auch das, was wir Verbrechen, Schmutz und Grauen heißen.

55) Hesses Brief an Hans Pott v. 24. 6. 1935. In: GB 2. S. 471.

56) Hermann Hesse: Das Glasperlenspiel. GW 9. S. 22.

헤세와 니체가 도덕을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도덕,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도덕, 현재의 삶 속에서 생을 복돋는 도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종래 기독교 도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도덕의 가치를 정립하고자 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정신의 세 변화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인간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세 단계로 설정한 것은 새로운 도덕으로 지혜롭게 완성되어 가는 인간의 길을 암시한다. 낙타 같이 종래의 기독교 도덕을 받아들이다가, 사자와 같은 용기로 과감히 그 도덕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운 도덕과 지혜로 출발하는 이상적인 정신을 여기에서 묘사하였다. 헤세와 니체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도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⁵⁷⁾

IV. 나가는 글

헤세와 니체는 영원회귀 사상과 도덕비판에 있어서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과 도덕에 회의하였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서구 기독교 사상을 잘 알고 또한 동시에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제 사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폭 넓은 이해를 가졌다.

영원회귀나 도덕비판에 있어서 두 사람은 크게 보아 일치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철학자로서 일련의 사상적 체계 속에서 영원회귀 사상을 가졌으며 종래의 기독교 도덕을 비판하였다. 우주 만물은 시작과 끝이 없고 목적 없이 영원히 회귀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목적이 있으므로 니체는 회의하였고 절망하였다. 그리고 자연을 관찰할 때, 거기에는 영원회귀와 힘이 지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신을 죽였고 허무주의에 빠졌다.⁵⁸⁾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한 허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못

57) 발터 니그: 예언자적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 정경석 역. 분도출판사 1973. 67 쪽 참조.

58) 그를 ‘허무주의자’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말대로 “허무주의를 이제 자신의 뒤로 하고, 밑으로 하고, 밖으로 한 유럽 최초의 허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박을 수는 없다. 그의 사유가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에 남 다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선행된 연구 및 본 논문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니체가 초인을 등장시킨 것, 가치를 전환한 것, 운명애를 강조한 것, 생의 철학을 추구한 것 등이 모두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를 말할 때 이런 허무주의의 극복을 간단히 언급한 것은 본 논문의 주제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면의 부족 때문이다. 헤세의 경우에 영원회귀 사상은 상상력과 낭만적 유희를 가져다주는 좋은 모티브였다. 니체가 도덕비판을 한 것은 인간의 삶이 기독교의 도덕에 얽매어서 활기를 잃고 비참해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적인 삶의 활력과 이상이 기독교의 도덕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의 도덕의 가치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니체는 초인을 끌어들이으로써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런 일련의 철학적 사고 속에서 얻어진 것이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며 도덕비판이다.

헤세의 경우에는 이런 사상적 연결성이 없다. 헤세는 니체보다 동양의 제 사상과 종교에 대해 체계적 통찰을 가졌다. 그의 영원회귀 사상은 철학적인 사상이기 보다는 종교적 이해와 접근의 한 단면이며 자유분방한 문학적 상상력과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영원회귀 사상은 『픽토르의 변신』에서와 같은 동화적 환생과 낭만적 유희의 성격이 짙다. 헤세는 니체와 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사상을 나타내기 보다는 문학적인 소재나 주제로 영원회귀를 받아들였다. 헤세는 도덕비판에 있어서도 주인공을 통해 종래의 기독교 도덕을 비판하며 기독교 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기독교 종교에서 세계종교로 그 지경을 넓힌다.

헤세와 니체를 비교분석하는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는 한 사상이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살펴 본 헤세와 니체에게 똑 같이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상을 받아들일 때의 배경과 해석에 있어서 개개인에 따라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사상가로서 또 헤세는 작가로서 이해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헤세와 니체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런 비교분석적인 관점을 통해 헤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일차문헌

- Hesse, Hermann: Ausgewählte Briefe. Frankfurt./M. 1981.
ders.: Die Gedichte. 2 Bde. Frankfurt/M. 1977.
ders.: Eigensinn. Frankfurt/M. 1972.
ders.: Gesammelte Briefe. 4 Bde. Frankfurt/M. 1973ff.
ders.: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Frankfurt/M. 1970.
ders.: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2 Bde. Frankfurt/M. 1966/
1977.
Nietzsche, Friedrich: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n in 15 Bänden.
Hrsg. v. Giorgio Colli und Mayyino Montinari. München 1980.
ders.: Umwertung aller Werte. Hrsg. v. Friedrich Würzbach.(= dtv-Bibliothek
6079) München 1969.
Liä Dsi: Das wahre Buch vom quellenden Urgrund. Buch I, 4: Die
Totengebeine. Kreislauf des Lebens. Düsseldorf 1972.

이차문헌

- 정경석 역: 예언자적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 분도출판사 1973.
이인웅: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 두레. 2000.
정동호 편: 니이체 철학의 현대적 조명. 청람 2001.
_____: 니이체 연구. 탐구당 1983.
홍순길: 헤세와 니체 I. (=헤세 연구 13) 2005.
_____: 헤세의 생애를 통해본 방랑과 안주의 모티브. (=헤세연구 8) 2002.
_____: 헤세의 작품에 나타난 방랑과 안주의 모티브. (=헤세연구 9). 2003
Löwith, Karl: Nietzsches Philosophie der Ewigen Wiederkehr des Gleichen.
Stuttgart 1956.
Mayer, Gerhart: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s mit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Diss. Bonn 1956.

- Morgenstern, Christian: Nietzsche. In: Bruno Hillebrand(Hrsg.): Nietzsche und die deutsche Literatur. 2 Bde. Tübingen 1978.
- Stambauch, Joan: Nietzsche's Thought of Eternal Retur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2.
- Ziolkowski, Theodore: The Novels of Hermann Hesse. Princeton 1965.

Zusammenfassung

Hesse und Nietzsche II

– Mit Schwerpunkt auf die Ewige–Wiederkehr und Moralkritik –

Hong, Soon-Kil (Mokwon Uni)

Die Tatsache, dass es keine nennenswerten Forschungen über die Beziehung zwischen dem Gedankengut Nietzsches und Hesses gibt, überrascht uns. Man glaubt, Nietzsche habe mit Hesse nichts zu tun, sondern höchstens mit Thomas Mann, Hugo von Hofmannsthal oder den expressionistischen Dichtern wie Carl Sternheim, Georg Heim, Gottfried Benn u.a. Aber Hesse steht zeit seines Lebens unter der starken Wirkung Nietzsches. In den Briefen und fast allen Werken Hesses sind Spuren Nietzsches zu erkennen. Ein Beispiel dafür ist das Werk *Zarathustras Wiederkehr*, das sich im Titel und Stil an Nietzsches *Also sprach Zarathustra* anlehnt. Der Nietzsche–Einfluß bleibt auch weiter in den Werken wie *Peter Camenzind*, *Siddhartha*, *Demian*, *Klingsors letzter Sommer*, *Das Glasperlenspiel* u.a., also von den früheren bis zu den späteren, erhalten.

Unter den Hauptgedanken Nietzsches sind die beiden, Ewige–Wiederkehr und Moralkritik, im Zusammenhang mit denen von Hesse zu berücksichtigen. Der Gedanke der Ewigen–Wiederkehr, die Grundkonzeption des Werkes *Also sprach Zarathustra*, stammte von der Naturphilosophie im Westen und von der buddhistischen Lehre im Osten. Dieser Gedanke beschäftigte jeweils zwar

Hesse und Nietzsche, aber sein Ansatz und die Folge waren verschieden.

Im Fall Nietzsche ist er an der Ewigen-Wiederkehr, einer “ewigen Sanduhr des Daseins”, so verzweifelt, dass er in den Pessimismus gerät. Im Vergleich zu diesem wiederkehrenden Phänomen der Natur ist das Christentum mit seiner Lehre von Anfang und Ende naturgesetzwidrig. Deswegen tötet er Gott und statt seiner bedarf er eines Übermenschen zur Überwindung des Pessimismus.

Der Gedanke der Ewigen-Wiederkehr Hesses ist keineswegs eine Folge des philosophischen Denkens, sondern die der dichterischen Einbildungskraft, die sich meistens in den Märchen und Romanen zeigt. Die Helden Hesses wollen kein Nirwana, sondern dadurch weiter freiwillig in den Kreislauf treten, dass sie sich in tierische, pflanzliche, steinerne oder menschliche Gestaltungen verwandeln. Hesse und Nietzsche übten heftige Kritik an der Moral, die auf der Basis des Christentums steht. Aber ihre Moralkritik unterscheidet sich in einigen Punkten, zum Beispiel in der Darlegung des Guten und des Bösen. Bei Nietzsche hängen das Böse und das Gute nicht von der herkömmlichen, christlichen Moral ab, sondern ganz und gar vom Willen zur Macht. Bei Hesse bleiben die Kriterien zum größten Teil in der christlichen Moral, aber die Wertung des Guten und des Bösen spielt bei ihm keine wichtige Rolle. Das Gute und das Böse sind Gegenpole, die zueinander in eine Einheit gebogen werden sollen. Hesse hält die Gegensätze für Täuschungen, die zwischen “Böse und Gut zu liegen scheinen.” Hesse und Nietzsche möchten keine christliche, dogmatische, zielorientierte und schablonenartige Moral. Sie möchten neue Moral, worin man dionysisch frei atmen und Lebensfreude fühlen könne. Sie wollen alle von ihrer eigenen Moral leb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die Absicht, Hesse und Nietzsche im Sinne der Vergleichende Literatur zu betrachten und damit einen neuen Horizont zu eröffnen. Darüber hinaus wird sie zu einer lebendigen Hesse-Rezeption beitragen.

【주제어】 : 헤세, 니체, 영원회귀, 도덕비판

【Schlüsselbegriffe】 : Hesse, Nietzsche, Ewige-Wiederkehr, Moralkritik

【이메일 주소】 : hongsk@mwus.mokwon.ac.kr

논문투고일: 2005.10.29 논문심사일: 2005.11.25 게재확정일: 2005.11.28